



## “파업은 우리 몫의 책임을 지기 위한 싸움”

### 노조, 사장실 앞 집회서 사장에 책임조치 요구

연합뉴스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본사 7층 사장실 앞에서 박정찬 사장에 게 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총 책임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공병설 위원장은 “박 사장이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사장은 올해 말 적절한 시점으로 제시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포함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공정정보가 망가진 것이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박 사장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사 구성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것은 최고 책임자인 사장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투쟁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뿐만 아니라 우리 몫에 책임을 지

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일개 직원들도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장은 어떠한가”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집회에서 텐트 노숙투쟁과 사장실 앞 1인 시위 경험담을 공유했다.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사장 연임반대 견해가 2/3를 넘어서자 노조는 9일부터 이 두 가지 시위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밤 텐트를 지킨 김남권 조합원은 “사장이 결단할 김새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불침번을 서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빛이 안 보이지만 그럴수록 용기를 갖고 각오를 다지는 한 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입사한 서혜림 조합원은 “수습기자 때 사회부 1진이었던 선배와 단 둘이서 텐트를 지키며 파업에 관해 많은 얘길 나눴다. 많은 분들이 지지 방



을 와서 힘을 얻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국 소속으로 1인 시위의 첫 당번을 맡은 윤선희 조합원은 “피켓을 들고서 있으면서 사장과 임원을 자주 마주쳤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고 큰일 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모습을 드러낸 박 사장은 굳은 얼굴을 한 채 아무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우리도 책임졌다. 박 사장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연합 노조가로 하나 된 우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 성황리에 열린 노조가 경연대회...공정보도 쟁취 결의 다져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동지들과 다 함께~”

14일 오전 11시 연합뉴스 노조가(歌) 경연대회가 열린 본사 서관 8층은 조합원들의 노랫소리로 떠들썩했다. 조별로 나뉘어 벌인 경연에서 조합원들은 동요, 만화주제곡, 유행가 등을 개사한 각기 다른 개성의 노조가를 선보였다. 하지만 ‘힘들어도 함께하자’라는 노래의 메시지만은 하나였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울동까지 준비한 1조가 차지했다. 동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개사한 1조는 “때론 징계 손배소에 협박도 하겠지만 / 연합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라는 가사로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1조는 거수투표에서 29표를 얻어 큰 표 차이로 2위를 따돌렸다.

1998년 입사한 김남권 조합원(정치부)의 ‘귀여운’ 울동이 우승에 한몫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평가다.

동요와 만화주제곡을 개사한 노조가가 난무하는 가운데 1조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인 ‘우리 지금 만나’를 개사, 2위에 올랐다. 이들은 박정찬 사장을 겨냥한 “당신 지금 나가, 당장 나가!”라는 후렴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 말 입사한 ‘젊은 피’ 오예진, 한혜원, 강운승 조합원은 화려한 랩을 선보이기도 했다.

3조는 만화주제곡 ‘달려라 하니’와 ‘우주선장 울리시스’를 개사한 ‘달려라 연합뉴스’, ‘언론선장 연합뉴스’를 힘차게 부르며 물량공세를 펼쳤다. “공정한 보도 위해 달려야 / 두 주먹 꼭 쥐고”라는 3조의 노래에 조합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2조는 외로워도 슬퍼도 웃으면서 공정보도를 쟁취하자는 내용인 ‘싸움담 캔디’를 준비했지만 어색한 해병대식 박수와 함께한 합창으로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노조가를 겨루는 대회였지만 이날의 최고 인기곡은 노조 집행부가 동요 ‘섬집아기’를 개사해 만든 ‘집행부가’였다. 집행부는 두 손을 꼭 부여잡고 흔들며 구슬픈 곡조에 심경을 담았다. 이들이 “조합원 일 끝나고 집으로 가면 / 집행부 혼자 남아 일정 짜다가”라고 노래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집행부는 이번 주 일정을 노래로 공지하면서 “안 나온 조합원들 모두 나오면 / 집행부 신이 나서 점심 줍니다”라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집행부가’는 이번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 “혹시나 그대들 흔들릴 때 힘 되려고, 지구 반대편에 남아있습니다.”

## 파업 재참여한 양정우 조합원

‘우린 하나다.’연합뉴스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얻은 귀중한 성과 중 하나다. 연가투쟁 당시 뉴스통신진흥회 앞 집회에서, 총파업 결의 총회에서, 파업 기간 각종 집회와 전체 모임에서 조합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 보도나 인사, 노동여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만큼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열망이 강함을 확인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힘들고 지칠 때 집회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존재에 힘을 얻곤 했다.

이 지점에서 특파원들과 국내 조합원이 처한 상황이 같린다. 특파원들은 각각 부임지에서 ‘나홀로 투쟁’을 벌여야했다. 국내 조합원처럼 ‘집단 속에서 자기 고양’을 경험하지 못했다. 특파원들이 50일간 파업에 동참했던 것이 아쉬우면서도 소중한 이유다.

멕시코시티 특파원인 양정우 조합원은 파업에 재참여하기로 했다. 다른 특파원들과 같이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이같이 결정했다. 외로운 결단을 내린만큼 외로움이 많았을 것이다. 연합뉴스 노보가 메신저로 대화를 신청하자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단번에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람이 그리웠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투쟁의지는 굳건했다. 국내 조합원들이 흔들릴 때 지구 반대편에서 파업 대오를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며 힘을 내라고 응원했다. 양 조합원은 이번 파업 과정을 통해 쓰고 싶은 기사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스스로 단련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차기 사장이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합원의 전화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조합원과 일문일답.

**▲ 타국에서 홀로 파업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 가정과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완전히 ‘하우스 와이프’다. 타사의 중남미 특파원은 브라질에 있으니 함께 술마실 사람도 없다. 골프도 안 친다. 파업이니까 지방으로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지만 안 되겠더라. 차 몰고 가다가 멕시코 갭단이라도 만나면 인생 끝이지 않나(웃음).

**▲ 특파원으로서 유일하게 파업참여 중이다. 쉽지 않은 결정 아니었나?**

= 특파원이라는 회사가 부여한 직무가 있지만, 그에 앞서 파업 상황에서는 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내가 파업에

복귀한다고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힘이 빠질 때, 흔들릴 때 지구 반대편에서 한 명이라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되지 않겠나. 내가 지도부처럼 협상에 나선 것도, 파업 행사를 주도하는 것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 파업에 따른 경제난은 없나?**

= 특파원은 일반 사원과 달리 매월 초에 월급과 체재비가 들어오는데 나도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었기 때문에 이번 달 체재비는 일부 들어왔다. 하지만 다음달은 아무래도 걱정이 다. 다행히 큰 아이는 5살이라 유치원을 다니고 세 살배기 작은 아이는 집에 있으니 교육비 부담은 아직 크지 않다. 하지만 집세는 압박이 된다. 어느나라나 그렇겠지만 외국은 월세가 비싸다. (체재비를 못 받아) 제때 월세를 못 내면 6월에 집세가 싼 곳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할 것이다.

**▲ 파업으로 연합뉴스와 조합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

= 아무것도 읽지 않으면서 파업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제대로 못 했으니 감당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눈 감고 기사 쓰고,



불공정 보도에 대충 버티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서 월급을 받아왔다. 그쪽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기자로서 스스로 잡아야 할 부분을 잡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이다. (출입처에서 연합뉴스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파업에서 승리하고 돌아가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연합뉴스 기자들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아니냐.

**▲ 양 조합원의 특파원 연대사가 한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

= 멕시코 지방 출장 중이었는데 연대사를 보내달라고 하더라. 밤에 취재원들과 폭탄주 3잔 마시고 호텔방에 올라와 고민하다가 벽 보면서 녹음했다. 아무도 없는데 벽 보고 말하려니 참... (웃음).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적장의 목을 따오는 노동자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파업 과정에서 깨지고, 다시 뭉치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배우고 있다. 또 공정보도의 가치를 가슴에 소중하게 안게 됐다. 이것이 파업의 최대 결과 아니냐. 결코 이번 파업으로 패배감만 안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지금 우리 스스로 단련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면 포스트 박정찬 사장이 들어올 때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극강의 투쟁 언사였나(웃음). 전화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꼭 전해달라.

**오늘의 파업 키워드\***

## “스마트폰”

모든 일이 손안의 작은 기기로 해결되는 스마트한 세상. 23년 만의 총파업을 이어나는 연합뉴스 노조의 투쟁에서도 스마트폰의 역할은 크다. 돌아가신 ‘장스 형’도 예상하지 못했을 투쟁 속 스마트폰 이야기.

〈투쟁의 불길도 스마트폰에서?〉

지난해 12월, 서서히 타오르던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던 젊은 기자들의 성명, 이 성명의 준비 과정도 ‘스마트했다’ 것을 아시는지.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단 한 번. 일단 성명을 내자고 의견이 모아져 누군가가 초안을 작성해 포털 사이트의 문서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

다른 이들은 업무 중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공유 문서에 접속해 문장을 다듬고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최종안’이 확정됐다.

성명이 게시판에 올라가던 날, 이들의 카톡 창에는 불이 났다는 후문이다.

〈“밥언이 무서워... 스마트폰아 날 살려라”〉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회 현장. ‘무대 울렁증’ 탓에 발언이 두려운 조합원들은 슬그머니 사회자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을 꺼내 든다.

이때엔 마치 중요한 업무를 보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언자로 지목되고 나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경청해 주는 센스!

그러나 경험이 쌓이면 사회자도 진화하는 법이다. “자, 자꾸 고개 숙이시면 휴대전화 보는 사람 지목할 겁니다.”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사회부 대의원인 김연정 조합원은 대의원의 내내 실 틈 없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인다.

회의 내용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모조리 받아적고는 잠시 자체 데스크킹을 본 뒤, 사회부 ‘카카오톡’ 창에 붙여 넣으면 공지 업무는 끝!

조합원들은 채팅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김연정 조합원은 이 내용을 다시 집행부에 전달하면 된다.

각 조합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일도 이렇게 손안에서 해결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벌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

이 밖에도 부서별·동기별로 해서 모인 수많은 카톡 창에선 오늘의 현장 이야기, 시장의 말에 대한 공유와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잃어버리면 두 배로 슬퍼요!〉

투쟁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스마트폰이다 보니 잃어버리면 타격이 두 배가 된다. 불행히도 권영진(미디어과학부), 양영석(대전충남취재본부) 조합원은 파업 도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야 했다.

가뜩이나 월급도 나오지 않는 와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으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권영진 조합원은 “그래도 아이폰드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며 ‘스마트한’ 배포를 드러냈다고.